

1 본회소식



제24대 임원상견례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7월 25일 12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제24대 임원상견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수담한정식에서 개최했다. 이번 상견례에는 지난 5월 총회에서 권영걸(69응미) 회장이 연임하게 됨에 따라 유임된 임원(회장단)과 신임 임원, 모교 민복기(95공예) 부학장과 재학생 대표 박소민(22공예), 박서영(22서양) 학생,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본회 이승은(14동양)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견례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뒤 권영걸 회장의 인사말과 민복기 부학장의 축사, 선임장 수여, 동창회 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회장은 변희준(63조소) 고문과 이종복(62응미) 감사, 이은숙(81회화) 부회장 등 신임 임원들에게 선임장을 전달했으며,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의 사업내역 보고, 김홍규(83공예) 상임부회장의 사업계획보고, 주요 공지사항으로 후원금 내역 등이 발표됐다. 이어 기념사진 촬영 후 오찬을 함께 한 후 행사를 마쳤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본회 기념품(작업용 앞치마)과 자료집 '서울대미술인' 등을 증정하였다.



본회소식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



본회는 지난 7월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제 19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시상식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상을 시상했다. 올해 1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이사장 장부남)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로, 본회에서 2018년부터 최우수상인 서울대미대동창회장상을 후원해오고 있다. 금번 대회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총 3,56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동창회장상은 당 정중학교 3학년 마수연 학생이 수상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수상자는 오는 8월 8일에 개최되는 서울-아세안 청소년문화교류전 '2023 아시아의 아이들의' 출품 자격을 얻는다. 본회는 지난 2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와 상호간 주요 전시회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전 공모

본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병원내 갤러리 SPACE-U에서 '힐링아트'를 개최한다. 본회는 이번 전시에 참여할 작가의 선정을 최초로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응모한 회원들의 작품자료를 대상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실에서 작가 선정을 하였다. 그결과 소미정(10동양), 송인옥(82회화), 이승은(14동양) 3인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3인의 작가는 환우 분들과 편안한 정서를 나누고자 하는 전시 취지에 맞추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숨은예술가전 개최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과 함께 '숨은 예술가들'전을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다. 해당 전시의 참여 작가는 서울대 동문들로, 전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을 가진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서울대 동문 중 선정된 이들은 내년에 외부에서 정식 개최될 '2024 숨은예술가들' 전시에 초대될 예정이며, 역량이 뛰어난 동문의 경우 미대동창회 명예회원으로 모셔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장동정



이코노믹 리뷰 인터뷰

본회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회장이 '이코노믹 리뷰'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권회장은 첫째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대두된 새로운 국가 상징공간의 구축,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구축, 셋째, ICT 융복합 기반의 K-건축도시 수출모델 개발, 넷째, 지방소멸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환경 모색 등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이상이 실현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 경제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권회장은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일상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용산으로 들어온 것은 '녹지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뜻깊은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을 지낸 권회장은 국내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서울시에서 초대 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디자인서울'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2007년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을 맡았고, 저서로는 '신문명디자인',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공공디자인 행정론', '공간디자인의 언어' 등이 있다.

에스아트플랫폼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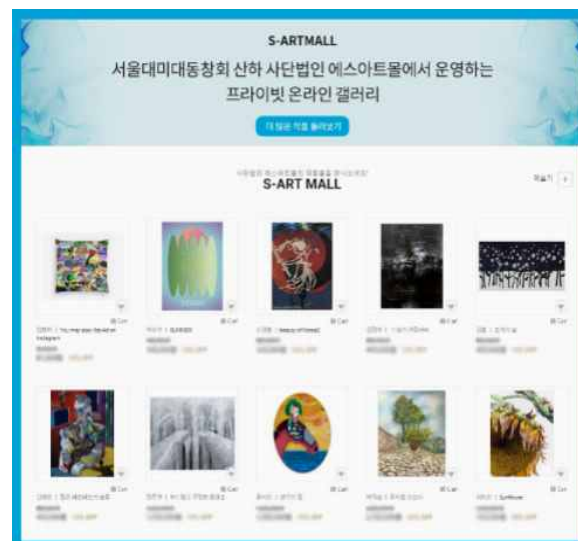


정기총회 개최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은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갤러리소션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이사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2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보고, 안건인준,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년도 사업회계에 대해 인준을 마친 뒤에는 향후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

으며 특히 교육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추후 이에 대해 검토 및 진행하기로 했다.

Mall SNUA에 에스아트몰 입점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라이빗 온라인갤러리 에스아트몰이 지난 7월 2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동문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Mall SNUA(몰스누아)에 입점했다. 입점 작품은 회화, 공예, 프린트, 아트상품 등 200여점이다. 현재 총동창회 회원 5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Mall

SNUA 입점을 통해 더 많은 서울대 동문들에게 미대동문들의 작품을 알리고, 미술작품과 아트상품의 소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ll SNUA는 검색창에 mallsnua.com를 입력해 접속하면 되며 회원가입이 필요하다.(작품등록 문의: 에스아트플랫폼 02-877-8065)

모교소식



디자인역사문화전공 국제학술대회 연구 발표

콜롬비아 마니살레스에서 진행된 Foro Académico Internacional de Diseño에 모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박사과정 드주진 학생과 석사과정 최지원 학생이 참가했다. 본 행사는 국제 이미지 페스티벌에 속한 국제 디자인 연구 및 디자인사학술대회로 1997년 시작해서 올해 19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환경·사회 문제를 다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XENOLandscape'이다. 드주진 학생은 자신의 논문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and Correlation of the 'Great Leap Forward' and 'Cheollima' Movement'('대약진'과 '천리마' 운동의 시각화와 상관성 연구)를 통해 중국과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개한 '대약진' 운동과 '천리마' 운동에서 제작한 시각내용물에 초점을 맞추고 기관과 조직방식, 전개과정, 그리고 시각이미지의 역사적 위치 등을 비교 분석했다. 최지원 학생은 'The birth and transformation of stainless-steel rice bowls in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period from the 1960s to the 1980s'(1960-80년대 한국 산업화 시대와 스테인리스 밥공기의 탄생과 변용) 연구에서 산업화 시대에 스테인리스 밥공기가 탄생하고 확산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사회의 일면을 고찰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콜롬비아 Centro Cultural y de Convenciones Teatro los Fundadores에서 개최되었고 온라인 Zoom meeting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교직원과 관악구민을 위한 창의예술교실 운영

조형연구소 정의철(88산디) 소장은 서울대 학생처에서 후원하는 대학 연구 성과 사회 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5일 부터 29일까지 모교 50동 301호에서 서울대 교직원 및 관악구민을 위한 창의예술교실을 운영했다. 창의예술교실은 현재 미술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강사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가의 특화된 작업 방식 및 표현 기법을 토대로 일반인이 창작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 수업이다. 대상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관악구민 성인 및 12~16세 청소년 (지인 및 가족, 초5~중3 자녀 동반 참여 가능)이며 1~3차 일정 중 택1 하여 수강하고 각 회차는 4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1. 태피스트리를 응용한 다양한 시민참여작업들을 감상하면서, 예술을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2. 자신만의 도안(싸인, 그림 등)을 구상하고, 일상 속에서 구한 재료들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태피스트리를 만들기. 3. 완성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이 만드는 다채로운 우리의 모습을 마주해보기.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강의를 진행한 서해영(06조소) 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22년 조각가를 위한 생츠퍼터1-바위 옮기기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서동문은 전통적인 조각을 지배하는 관념적인 의미부여와 결과-중심적인 작업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작가 개인의 구체적인 조건들과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중심적 작업'을 시도해왔다.

미운위소식

미운위 의장선출



모교 공예과 2학년 박소민(22공예) 학생이 2학기 미술대학운영위원회(이하 미운위)를 이끌 의장에 선출되었다. 2학기 동안 미운위 의장을 맡게 된 신입 박소민 의장은 "이런 직책을 맡게 된 것이 떨리지만 조금은 기대되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미대생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상기하여 힘이 닿는 곳 까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영상전 개최

미운위 가온 집행부에서 준비한 영상전이 지난 6월 23일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영상전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그리고 미디어 아트 등 모교 학생들의 다양한 영상작품들을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설아, 두소진의 <REBOOT>, 임이랑의 <Landscape sickness>와 <세탁>, 박수연의 <우주인이 되는법>과 <서브웨이 애니웨이>, 한정인의 <Tent>와 <Boundary>, 김선형의 <Lichen: A Symbiotic Shift to Equality> 유혜선의 <말짱과 구타>와 <Sweet Suite



Room>, 구태승의 <Pieces>, 김수민의 <Break Away Pseudo>와 <Sweet Cannibalism>, 김은주의 <불행배틀>, 아하령의 <IQ314g>와 <단팥과 밀밭들>, 그리고 박세인의 <가련한 대학생(들)>이 총 3타임에 걸쳐 오전 11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었다.

감상단과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된 참여자 3명에게는 학장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dot자리대여사업 개최



미운위 가온 집행부가 지난 6월부터 dot자리 대여사업을 진행했다. dot자리 대여 장소는 52동 입구로 이용방법은 대여사업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데, 그곳에 과/학번/이름/전화번호/반납시간을 남기면 대여가 가능하며, 사용 후 자율반납하고 반납했다는 확인문자를 채팅방에 남기면 된다. 미운위 김수민 의장은 "자율대여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dot자리를 쉽게 빌릴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고 사업 후기를 밝혔다.

서울대소식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 접견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회장을 접견하였다. 슈밥 회장이 서울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에서 유홍림 총장과 슈밥 회장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이민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슈밥 회장은 한국 등이 본인이 제기한 4차 산업혁명 이슈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국가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얼음 위에 손 얹고 '오래 버티기'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지난 7월 3일 건국대에서 열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코위크(CO-Week) 출범식서 타 대학 10여 명의 총장들과 함께 대형 각얼음 위에 손을 올리고 '오래 버티기' 게임에 참여해 가장 오래 버틴 총장 1등을 기록했다.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은 이날 유 총장과 함께 얼음 위에 동시에 손을 얹은 10여 명의 총장들은 1분도 채 안 돼 손을 번쩍 들었다. 가장 오래 버틴 총장 소속대학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임에서 유홍림 총장은 1분여를 넘겼다. 유총장은 마지막까지 표정 변화 없이 평화롭게 웃으며 최종 승자가 되어 현장에 있던 서울대 학생들에게 선물을 안겼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선정 53개 대학 81개 사업단은 '제2회 코-위크(CO-Week) 아카데미'와 연계해 이날부터 7일까지 5일간 건국대에서 일평균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분야별 강좌를 개최했다.

백남준 국제심포지엄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 오디오리움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제심포지엄 '랜덤 액세스 사운드: 리사운딩 백남준'이 열렸다. B/S 콘스트라움이 주최·주관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협찬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32년 백남준 탄생 100주년 기념을 준비하기 위한 2023년에 개최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이다. 백남준 예술에 대한 음악과 시각예술의 새로운 담론 발생과 학제 간의 교류를 증대하여 백남준 융복합 정신(음악, 미술, 전자기술)의 원류를 21세기에 맞춰 재조명하고 글로벌 아티스트 백남준의 예술적 유산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끌어 올리고자 열렸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 섰던 백남준에 대한 국제 교류가 3개의 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더불어 한국에서 개최하고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백기사(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 예화랑, 서석호가 후원했으며, 참여 연사로는 디터 다니엘스(라이프치히 예술대학 (HGB) 교

수, 독일), 큐 리(뉴욕 시립대학교 교수, 미국), 김성은(백남준아트센터 관장, 한국), 엘케 알가이어(스튜트가르트 주립미술관-스타츠 갤러리 좀 아카이브 관장, 독일), 오구리스 마리코(쓰시마 뮤지엄 큐레이터, 일본), 이효주(바이올리니스트, 독일), 슈테판 폰 뷔제(뒤셀도르프 콘스트팔라스트 전 학예실장, 독일), 사이사 그레이슨(스미스소니언 아메리칸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미국), 박혜연(경희대학교 교수, 한국), 요시타카 모리(동경대학교 교수, 일본), 얀 토벤(베를린 예술대학교 음악학연구자, 독일), 최우정(서울대학교 교수, 작곡가, 한국), 이은정(백석 예술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한국)이 참여하였다.

규장각, 한국적 경험과 융합 그리고 시각적 언어' 특강



규장각에서 한국의 문화와 디자인의 융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바로 지난 6월 5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 신준범 교수(오리건주립대학교 그래픽 디자인과)의 '한국적 경험의 융합 그리고 시각적 언어' 특강이다. 이번 특강의 사회는 조인호(96동양) 동양화과 학과장이 맡았다. 신준범 교수는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사회 현상과 디자인의 융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작품 중에는 '촛불집회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포스터,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담은 작품 '남북의 창', '하나의 눈동자' 그리고 한국의 정원 소재 원을 모티브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이 있었다. 신준범 교수의 특강 이후 김수정(87산미) 디자인과 교수의 주도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한국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다채롭게 재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SNU 10-10 프로젝트' 관련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SNU 10-10 프로젝트'는 '세계 10위권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선도 집단'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수한 역량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학문분야를 선정해 최대 6년간 지원, 육성하는 서울대학교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15개 학문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미디어와 미래 기회에 도전하기 위한 예술 디자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고자 서울대학교가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미디어의 탄생과 도전', 'AI도구와 콘텐츠 창작 프로세스' 특강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이며,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참가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비대면 Zoom 및 대면으로 진행된다. 7월 27일에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만든 이종범 작가(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가 진행한 '스토리텔링 미디어의 탄생과 도전'에 관한 수업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9동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되었고, 8월 3일과 8월 10일에는 웹툰 '말박왕'의 용사 작가(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초빙교수)가 강의하는 AI도구와 콘텐츠 창작 프로세스 수업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8월 17일에는 정병화 조교가 진행하는 창작 네트워킹과 실천에 관한 워크숍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열릴 예정이다. 워크숍 이후에는 희망하는 학생 간 지속적 소통과 시너지를 위해 오픈톡방, 디스코드 그룹 등 온라인 그룹 생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한다.

2023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공개

지난 7월 5일에 서울대학교의 제4차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이사회의 제4차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대 권오현 이사장, 유홍림 총장 외 10명의 이사와 마광열, 고성천 감사 박원호 기획처장, 정봉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사항 2건, 심의·의결사항 1건 기타사항 1건, 총 5건의 안건이 있었다. 제1호 보고사항은 제도혁신위원회 관련 학칙 개정·규정 제정(안) 서면심의 결과, 제2호 보고사항은 2022년도 감사결과 및 2023년도 감사계획이다. 심의·의결사항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결산(안)이다. 기타사항으로는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가 논의되었다. 회의록 원문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김종섭 회장, 미주동창회 회의에서 공로패 전달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이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웨스트게이트호텔에서 열린 제32회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미주 전역 120여 명의 평의원 외 서울대 유홍림 총장 등 국내에서도 여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강(70의학) 동문이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에 취임했다. 김회장은 회의 마지막 날, 자신이 소유한 라스베이거스 소재 골프장으로 동문 및 가족 모두를 초대하고 미주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1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해외공헌활동 참여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서울대 하계 글로벌 SNU공헌단 활동에 총동창회가 9,000만원을 후원했다. 하계 글로벌 공헌 활동은 지난 7

월 27일 요르단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라오스 공헌단에는 신희수(16간호) · 김성진(17의학) · 이은규(18간호) · 이다은(20보대원) 동문이 합류하기도 했다. 총동창회 동문의 글로벌 SNU공헌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동문 기업 밀크포라오(대표 이재원), 라오스국립대와 협력해 스마트닭장 제작, 농업기술 세미나와 진료 활동, 과학 · 보건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관악캠퍼스 우정관에서 발대식이 열렸으며, 재학생 및 교직원 공헌단원 150여 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김성규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섭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각 나라에서 10일 정도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될 텐데, 본인에게도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더 나은 사회, 발전하는 지구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말했다.

최초의 질문: 기술선진국의 조건



6월 수요특강이 지난 6월 28일 오전에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열렸다. 이정동(86자원공학) 서울대 공대 교수가 '최초의 질문: 기술선진국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날 수요특강에서 이제 한국이 국제 표준화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정동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다.

LA서 우정의 평화음악회

지난 6월 28일 미국 LA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서울대미주동창회와 한미동맹재단 등이 주관한 평화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한미동맹을 기리고 한국을 위해 헌신한 미군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음악회이다. 이날 음악회에는 2,400여 주한미군 전우들과 미주 동포 등이 초청받아 금난새 예술 총감독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했다. 음악회에는 김종섭 회장, 이상강 미주동창회 회장,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을 비롯해 미 해군 남서부지역사령관 브래드 로젠 제독과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대령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총동창회를 비롯해 미주동창회, 풍산그룹, 하나제약, 성남시 등이 후원했다.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

총동창회가 지난 6월 30일 서울대 학군단 하계입영훈련 출정식에 앞서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를 열었다. 총동창회 송우엽(79체육교육) 사무총장은 "저뿐 아니라 본회 김종섭 회장님과 이경형 상임부회장님도 ROTC 출신"이라며 "김회장님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미국에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교육훈련 앞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라고 하셔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엔 송사무총장과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101학군단 이경필 단장 및 김용혁 선임교관, 김영길 군사학 교수, 학군사관후보생 18명이 참석했다.

동문바둑대회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7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에서 제19회 동문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58학번 동문부터 23학번 새내기 재학생 14명까지 130여 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단체전에 45명이 9개 팀을 이뤄 참가했고, 개인전에 85명이 출전했다. 4년 연속 우승한 농생대 팀과 통산 7번째 맞붙은 인문대는 문리대 팀 시절까지 합해 5번째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대국 종료 후 진행된 경품 추첨에는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기타를 협찬했으며, 참석 동문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했다.

9월 조찬포럼

- 일 시 : 2023년 9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주 제 :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 (예_홍길동9월조찬)

9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오전 9시
- 답 사 지 : 충남 내포지역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김밥·오찬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 (예_홍길동9월국토)

회비납부 안내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동결해 왔던 회비를 부득이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총회의결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회비구분		조정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5월 회비납부내역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회비입금내역(6.26-7.31)-가나다순

부회장 회비	강인선(73회화) 공상구(97동양) 김순애(78응미) 김유숙(87서양) 김천일(71회화) 김춘수(77회화) 김혜원(71응미) 배기열(92동양) 변영혜(78회화) 선우향(91서양) 신지희(83산미) 신하순(83동양) 안필연(80조소) 양승희(73회화) 이부연(71응미) 이선원(75회화) 이은숙(81회화) 이정연(71회화) 이진민(83서양) 임영선(79조소) 최범용(86공예) 한귀희(68회화) 한근석(81응미)
이 사 회비	김유주(80응미) 안규철(73조소) 양세혁(89조소) 이지희(80회화) 장문걸(79회화) 한석란(71조소)
일 반 회비	강호성(02동양) 곽준희(94공예) 김상경(87서양) 김춘이(59응미) 민균홍(77조소) 민복기(95공예) 박천수(87서양) 연기백(93조소) 이주영(61회화) 임옥상(68회화)
평 생 회비	안명숙(67응미) 이강소(61회화)
후 원 금	김소선(63조소) 100만원 나성숙(71응미) 100만원 채혜선(82응미) 100만원 홍미엽(76회화) 100만원 황현숙(66응미) 100만원 신경훈(74회화) 40만원 김명은(17동양) 25만원 김민영(19동양) 25만원 김정아(17서양) 25만원 박도현(16디자) 25만원
광 고 후 원 금	송근영(86동양) 20만원 송인옥(82회화) 20만원 하동철(61회화) 20만원 디팩 이한호 121,000원 86서양화동기전 10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조용익(54회화) 본인상=발인 7월 4일 양평군 양서농협장례문화원



단색화 1세대 화가인 조용익 동문이 지난 7월 2일 별세했습니다.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한 조동문은 모교 졸업 후 추계예술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1961년 제2회 파리비엔날레, 1962년 약티엘전 등에서 한국 현대 추상회화의 주요 작가로 활동했고 제 5·6회 파리비엔날레에 한국 전권대표로 참여했습니다. 2016년 성곡미술관에서 '지움의 비움'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 강덕선(79응미) 본인상=발인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후원안내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하시면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에 쓰입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86 동문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 86

86-23

2023.08.01-08.27

Gallery 더플렉스 · 더플로우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28(2F) 02,3663,7537 www.42art.com
Collaboration Gallery: 아트로지 스페이스

- | | |
|---------------------|--------------------|
| 김봉중 Kim Bong-Jung | 정윤희 YoonHee Zhoung |
| 이계원 Lee Ke-Won | 한수정 Han Soo-Jung |
| 이강우 Lee | 김향남 Kim Hyang Nam |
| 안성규 Ahn Sung-Kyu | 구정미 Gu |
| 이승훈 Lee, Seung-Hoon | 최성원 Choi, Sung Won |
| 김울림 KIM Woollim | 이균순 LEE KYUN SOON |
| 배준성 Bae Joonsung | 이지민 Jimin Lee |
| 서동수 Dongsoo Seo | 이지은 Jieun Rhee |
| 강재남 Kang Jae Nam | 허구영 Heo Ku-Young |
| 송영화 Youngwha Song | 고진한 Ko, Jinhan |
| 이상은 Lee Sang-Eun | 임채일 Lim chae il |

동문갤러리 탐방

갤러리소선

대표 김소선(63조소)

본지는 지난 7월 4일 갤러리소선을 방문하여 김소선 동문을 인터뷰했다.

갤러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갤러리소선이 들어선 자그만 공간은 본인이 신혼시절에 살던 집인데 지하실에 작품을 모아두었다. 언젠가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내 맘대로 살았다면 전원주택에서 창고 짓고 빗자루로 커다란 그림을 그리며 살았을 텐데 사회활동 하는 남편에 맞추어 아

파트에서 계속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었는지 지난 봄 남편이 제게 자그만 전시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생각해 보니 쌓여 있는 작품을 정리해서 내가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여 갤러리 오픈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자화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도자화의 작업은 20여 년 전 63조소과 동기인 고 김태욱씨가 운영하던 우일요라는 곳에서 몇몇이 모여 도조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2000년 제1회 세계도자엑스포의 홍보작가로 위촉되는 바람에 어영부영 도자화의 세계에 끌려들어 가게 되었다. 도자화를 제작하는 동안 고 김태욱 동문의 많은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 젊은 시절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 관심이 있었

던 나는 우리 전통미술에 있어서 도자와 민화의 매력을 함께 세계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약 2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도자화 전시를 하였다. 지금은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나 20여년 전만해도 그렇지 못했다. 나는 미력이거나 한국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도자화는 내가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림이 아니고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마가 열릴 때 느끼는 스릴이 있다. 그래서 도자를 불의 미학이라고 하는 듯하다. 나는 형태 위주의 도자가 아니고 도자를 캔버스 바탕이라고 생각하여 그 위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앞으로의 전시장 운영계획은?



지금 지하 전시실에는 도자화 전시가 있고 2층 전시실에는 유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확정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소그룹전이나 소박한 개인전을 기획할

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미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하고 수다도 떠는 아지트로 쓰이게 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술이란 이런 사랑방에서 꽃을 피워 온 것이 아닐까?

후배, 동창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전시 장소가 필요한 동문이 있다면 갤러리소선의 공간 중 일부 층을 함께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갤러리소선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44길 19
전화 : 02-2272-4072

MOU 체결 갤러리

지아트갤러리 대표 배기열(92동양)



지아트갤러리(G-Art)는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역 사회와 국제적인 예술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작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여 그들의 예술적 비전을 널리 알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터치하라! 세상을 예체인지(藝體人知)하라!』는 좌우명을 내세

우고 있다. 지아트갤러리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시각적인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사회적인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고 예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적인 다양성과 풍부한 경험을 존중함으로써 교육, 문화 교류, 예술가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아트갤러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예술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관으로서 재단법인 배기열 융합예술원과 함께 장학사업, 도서기증사업, 장애인예술가 지원사업, 기업과 함께 장애인 예술가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아트갤러리는 본회와 MOU를 맺고 매년 1회 본회가 추천하는 동문의 초대전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 지아트갤러리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4 전화: 02-722-7955 Fax: 02-722-7966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대표 박수현



아트스페이스 켈리아(Art Space Qualia)는 2014년 5월 첫 전시를 시작했다.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여러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출발하여 원로 중견작가들의 전시는 물론 예비 작가들과 청년작가들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하여 개

인전뿐만 아니라 공모와 추천을 통해 매년 초대전과 기획전을 해 오고 있다. 북한산 자락 보현봉이 보이는 마을 안에 자리 잡은 아트스페이스 켈리아는 특히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적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켈리아의 어원은 감각질(Qualia)로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 떠오르는 심상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질을 가리킨다. 예술이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관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열린 갤러리이다. 아트스페이스 켈리아는 본회와 MOU를 맺고 매년 1회 본회가 추천하는 동문의 초대전을 열기로 하였다.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의 설립목적과 본회의 방향을 잘 조합하여 미술계와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 기대한다.

■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41 전화: 02-379-4648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나희균(50회화)

나희균 동문이 제68회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탁월한 창작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대한민국예술원이 수여하는 상(상금 5000만원)이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나동문은 1950년대 유럽에서 유학한 최초의 한국 여성 화가이다. 나동문은 여성미술인 최초로 파리국립미술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심화시켰다.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네온을 이용한 작품으로 한국화단에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원상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서초구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는 산업재인 철과 파이프를 이용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미술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15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환기미술관에서 70년 화업을 돌아보며 재조명한 전시 '나희균, 고요의 빛'을 열기도 했다. 아흔 살이 넘은 지금도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서초구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젊은예술가상 수상 조인호(96동양) 서해영(02조소)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미술부문에 조인호, 서해영 동문이 선정되었다. 젊은예술가상은 만 45세 이하의 예술인에게 대한민국예술원이 수여하는 상(상금 2500만원)으로 부문별 최대 2명에게 수여한다. 본 상은 지난해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았다. 조인호(◀사진) 동문은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에 집중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진경을 묘사한 산수화를 그린다.

조동문은 2007년 첫 개인전 무렵부터 줄곧 산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기법, 재료, 주제, 장르를 넘나드는 등 세대 작가들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전통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뚜렷한 예술적 주관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

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 한원미술관에서 열린 초대전 '유고군산군도'를 비롯하여 15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22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모



교 동양화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해영(◀사진) 동문은 '조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한다. 그는 사람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 중심적' 입체 작업을 한다. 서동문은 조각을 만들고 감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너무나 '결과 중심적'이고, 이러한 결과 중심적 작업이 작품의 결과에 관념적이고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권

위적인 태도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그가 말하는 '과정 중심적' 조각이다. 서동문은 김종영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여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등에 선정되었다.

이종수미술관 건립 추진 이종수(54응미)

이종수 동문의 작품 전시를 위한 미술관 건립을 대전시에서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 3월 29일 시청에서 이종수의 배우자인 송경자 여사와 미술관 건립 및 작품 기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종수미술관은 2007년 문을 연 이응노미술관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예술가 개인 이름을 넣어 추진하는 미술관이다. 대전시는 이종수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국민 작가를 발굴해, 그동안 문화예술의 불모지와 같았던 대전을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허브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미술관 건립은 지난달 유족이



이동문의 유작을 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유족이 오는 9월까지 기증작품 목록을 시에 전달하면, 시는 심의·평가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기증작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1964년 당시 미술학과가 없던 대전실업대학에 생활미술과를 개설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이화여대 미대 교수로 일하다 작품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임했다. 이후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와 도예가의 길에 전념했다.

이동문의 유작을 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유족이 오는 9월까지 기증작품 목록을 시에 전달하면, 시는 심의·평가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기증작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1964년 당시 미술학과가 없던 대전실업대학에 생활미술과를 개설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이화여대 미대 교수로 일하다 작품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임했다. 이후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와 도예가의 길에 전념했다.

한국화진흥회 정기전 개최 김춘옥(64회화)

김춘옥 동문이 한국화진흥회 네 번째 정기전 '천천히 스며들다'전을 지난 7월 5일에서 10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김동문은 한국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예술원 37대 회장 민경갑(작고/53회화) 동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화의 전통계승 및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한국화의 날을 제정하여 매해 12월 2일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2023년 한국화의 날 기념식으로 한벽원미술관, 평택신리 공간미술, 진도현대미술관, 마로니에공원 내 다목적실, 보름산미술관 등의 지역문화공간 전시에서 수준 높은 한국화를 보여주었으며 지역답사 및 세미나를 열었다. 또한 인도첸나이 Inko Centre, 미국 LA The Loft and



Studio 갤러리 등에서 해외전도 개최했는데, 특히 2022년 LA전시를 계기로 한국화에 관심 있는 현지 작가들이 뜻을 모아 한국화진흥회 LA지부를 설립하였다. 한편 '천천히 스며들다'전 오프닝에는 전석진(55회화) 진부령미술관 관장, 송근영(86회화) 한국화회 회장, 이민주(76회화) 한국인도현대작가회 회장, 최병국(77회화)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민희(85회화) 국민대 겸임교수, 박소영(73회화), 신하순(83동양) 모교 교수, 박소영(92동양), 이윤진(02동양), 한근석(81응미) 동문 등이 참석했다.

Studio 갤러리 등에서 해외전도 개최했는데, 특히 2022년 LA전시를 계기로 한국화에 관심 있는 현지 작가들이 뜻을 모아 한국화진흥회 LA지부를 설립하였다. 한편 '천천히 스며들다'전 오프닝에는 전석진(55회화) 진부령미술관 관장, 송근영(86회화) 한국화회 회장, 이민주(76회화) 한국인도현대작가회 회장, 최병국(77회화)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민희(85회화) 국민대 겸임교수, 박소영(73회화), 신하순(83동양) 모교 교수, 박소영(92동양), 이윤진(02동양), 한근석(81응미) 동문 등이 참석했다.

박수근미술상 수상 노원희(66회화)

노원희 동문이 제8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수근미술상은 박수근 화백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를 지원하고자 박수근미술관이 2016년 제정하였다. 노동문은 1980년대 민중미술을 이끈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삶과 괴리된 예술을 삶 속에 위치시키기 위해 동시대 현실과 관계있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많은 민중미술가 중 특히 노동문을 주목하는 것은 사회 속 삶의 모습을 살피는 시각이 여성으로서의 '시선'까지 확장되며, 이런 '시선'이 사회 이면을 더욱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2013년 퇴직 후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박수근미술관은 지난 7월 13일 시상식을 열고 창작지원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노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첫 개인전을 가졌고 1982~2013년 부산 동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이자 작가로서 활동했다.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으로서 1990년 해체 시까지 여러 차례의 동인전에 참여했다.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덕수궁’ 개정판 이향우(72주소)

이향우 동문의 책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덕수궁’의 개정판이 지난 4월 5일에 출간되었다.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덕수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편에 이어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시리즈를 마지막을 장식한 책이다. 석조전이 복원되어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던 2014년에 초판을 발행했다. 개정판이 만들어진 것은 2018년 고종의 길 조성, 2017년 영국대사관 돌담길 개방 등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덕수궁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덕수궁에 얽힌 대한제국의 근대 역사에 관한 관심을 계속해서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 동



문은 서울시청 앞 광장 중심에서 시작해서 조선호텔에 위치한 환구단 터를 둘러보고 덕수궁 내부와 정동길을 따라 종횡무진하며 덕수궁에 얽힌 대한제국의 역사를 되짚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다섯 번의 개인전과 여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조각가로 활동하였다. 23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우리궁궐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의재발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우리궁궐지킴이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물의 혁명’ 출간 김민수(79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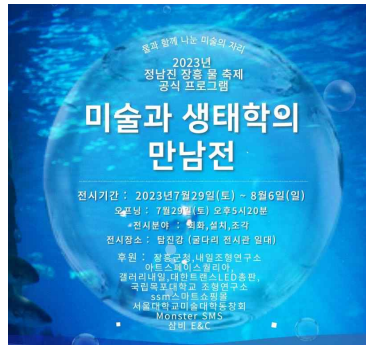
김민수 동문의 공저 ‘사물의 혁명’이 지난 6월 26일 출간됐다. 김동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의 결실인 이 책은 작년에 발간된 ‘한국 구축주의의 기원: 1920~30년대 김복진과 이상’에 이은 두 번째 저술로 1922년 탄생한 아방가르드 잡지 ‘베시’에 관한 연구서이다. 베시는 러시아와 서방국가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현대적 삶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자는 진취적인 목표를 제시했던 국제적인 현대 예술 평론지이다. 비서구권에서 최초로 베시의 원전 텍스트를 번



역하고 해설한 김동문은 베시 출현 이전 러시아에서 사물의 관점으로 예술을 인식하고 논의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러시아 구축주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룬다.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산업디자인 석사, 뉴욕대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저서로는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등이 있다. 현재 모교 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흥물축제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 박향률(70회화) 외 8인

이민주(76회화), 전성규(81회화), 서길현(91주소) 동문과 박수현 갤러리내일 관계가 기획하고 박향률(70회화), 허진(81회화), 류지선(89서양), 선우항(91회화), 김호준(92회화), 정일영(95서양) 동문 등이 참가한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이 지난 7월 29일 탐진강 일대 야외와 장흥 문예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전시는 장흥군청, 내일조형연구소 후원, 본회 협찬으로 7월 29일에 문을 연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회화, 설치, 조각을 망라한 작품이 장흥군민을 만났다. 특히 오프닝 식전 행사로



이민주 동문은 미술 워크숍 특강을, 김호준 동문은 라이브페인팅 시연을, 서길현 동문은 물 위에 뜨는 설치작품을, 전성규 동문은 문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설치작품을, 선우항 동문은 아테네학당 프레스코벽화 앞 포토존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의 주축을 맡은 서길현 동문(조형예술학박사)은 우리가 사는 서로 다른 현실을 저마다의 형식으로 투영시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물’을 주제로 하나의 전시로 구성하여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인두예술상 수상 신미경(86주소)

신미경 동문이 한국성을 담보한 국제성을 인정받아 제2회 하인두예술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인두예술상은 ART CHOSUN(아트조선)이 2022년 제정한 미술상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한국적인 추상미술을 선도하며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하인두(1930~1989)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비누를 소재로 서양의 조각상이나 회화, 동양의 불상과 도자기 등 특정 문화를 표상하는 유물과 예술품을 재현하는 작업에 몰두해 온 신동문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표피적 속성만을 취하고 이를 비누의 유약하고



연약한 물성을 통해 더욱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대상이 지닌 원본성에 대한 가치론적 질문을 던진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과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휴스턴미술관, 영국 브리티쉬아트카운슬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런던 바라캣갤러리, 우양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예술적 얼굴과 감정조절’ 출간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이 지난 6월 20일 ‘예술적 얼굴과 감정조절’을 출간(박영사)했다. 임동문은 항상 보는 얼굴과 항상 느끼는 감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금 자신을 보듬으며 스스로 성장하는 참신하고 특별한 전법을 이 책에 담았다. 또한 친절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의 책에서는 매일 같이 마주하는 ‘얼굴’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예술적으로 ‘몸’과 ‘마음’을 승화하는 ‘신심학(身心學, bodymindology)’을 개척하는 시도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



러 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회화 및 판화과 (Painting & Printmaking)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칼리지 미술 및 미술교육과 (Art & Art Educati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과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임동문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술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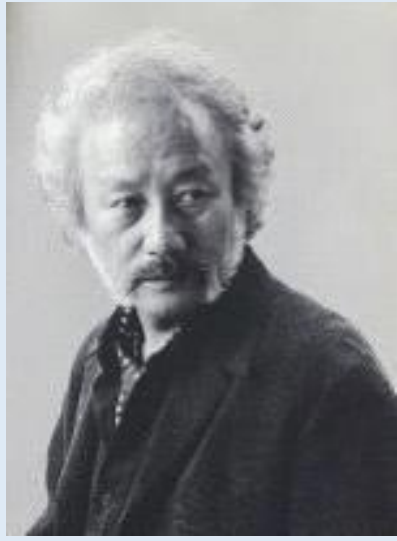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 박민주(10디자인)

박민주 동문이 책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에 실렸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와 대신만나드립니다 브랜드 강화팀이 출간한 이 책에는 최근 의료인으로 전직해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14명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있다. 이중 박동문은 한의사로서 미술적 감각을 한의미용치료 분야에 접목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직한 14명의 한의사를 만나 자기소개와 함께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 한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강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 한의대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묻고 들으며 한의사로 이직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LG, SKT 디자인 직렬 인턴십 수료,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전 하동철(61회화 1942-2006)



하동철 동문의 작품세계와 삶을 조망하는 아카이브 연구자료전이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아카이브 연구자료전에서는 회화, 판화, 탁본의 작품들과 아카이브 연구자료를 통해 하동철동문의 예술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하동문은 1961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하여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템플대학교 타일러칼리지오브아트 대학원에 유학하며 새로운 표현매체로서의 판화를 연구하였다. 귀국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재직 중 대학원 판화과를 신설, 이후 1985년 모교에서도 교편을 잡아 대학원 판화전공을 신설하고 한국현대판화가협회장을 지내는 등 한국에

판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성신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모교 학장을 지냈다. 그는 평생의 화업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자 사물의 본질로서 모든 것이 승화된 초월적 세계로서의 빛을 추구하였다. 수평, 수직, 사선이 만드는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구조와 화면에 균질하게 뿌린 색의 그라데이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선으로 빛, 우주, 무한의 공간을 구현하였다. 또한, 판화의 연속선으로서 탁본을 창작의 매체로 탐구함으로써 일상의 사물에서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6번 특선 및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5년, 첫번째 한국대표작가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정영목 서울대 명예교수(미술사)가 평론 <하동철의 추상: 빛을 품은 구조적 시공간>으로 평생의 화업을 소개한다. 또한 그의 동문인 이철주(61동양/전 중앙대교수) 동문의 인터뷰와 제자인 최은주(84서양화/서울시립미술관장) 동문, 그리고 차녀 하진(91서양) 동문 등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하동철기념사업회에서는 그의 유지를 따라 모교를 졸업하고 창작의 길을 모색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지원상'을 지원하고 있다.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 / 아카이브 연구자료전 : 하동철, 박복규

7.21 FRI - 9.10 SUN

장소 : 양평군립미술관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연락처: 031-775-8515



서울대미대동창회 서울대총동창회

S-ARTMALL + MallsNUA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이 MallsNUA에 입점했습니다.

MallsNUA는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동문전용 온라인몰입니다. 동문들을 위한 특별 할인가로 작품들을 소장해 보세요.

검색창에 mallsnua를 검색하세요! 작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11 회원동정-전시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 1927-2013)

박노수 동문의 가옥을 개방해 만든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의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화필인생-박노수의 모던타임즈'가 지난 5월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박노수미술관에서 열린다. 전통 속에서 현대성을 구현해 낸 박동문의 작품세계와 근대 유산인 화가의 집, 동시대 동양화가들의 아틀리에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수용과 변용'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여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동문의 '쪽빛 세계'를 강조한다. 기존 수묵화에서 보기 힘든 쪽빛을 감각적으로



사용한 작품은 동시대 동양화단이 모색한 현대성을 보여준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195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후 이화여자대학교와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해방 후 정체성을 되찾고자 노력하던 시기, 정규 대학교육을 받은 1세대 한국화가였던 박동문은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infinite breath 정상화(53회화)

정상화 동문의 개인전 '무한한 숨결 infinite breath'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갤러리현대에서 열린다. '무한한 숨결' 전은 정동문과 갤러리현대가 함께하는 아홉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이후 전개된 그의 독창적 그리드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매체 실험을 통한 작가의 조형적 탐구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는 표면에 대한 정동문의 독보적인 표현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1970년대 작품부터 근작까지 40여 점이 대거 소개된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동문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작업 과정을 연마해 왔



고, 캔버스에 고령토와 아교 등의 재료를 칠하고 덧붙이고 떼어내고 메우는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번 전시에는 고령토를 사용한 회화 작품 이외에도 프로타주, 데콜라주, 목판, 아크릴 작업 등 실험적 요소가 강한 작품도 함께 선보여 정동문의 미적 여정을 추적한다. 한편 정동문은 1957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한국현대작가초대전'(1960), '악튀엘그룹전'(196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고 파리비엔날레(1965), 상파울로비엔날레(1967) 등에 한국 작가로 출품했다.

리빙 넥스트 도어 메타-아티스트 홍명섭(72조소)

홍명섭 동문과 현지정 작가의 2인 기획전 '리빙 넥스트 도어 메타-아티스트'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대전 대흥동 스페이스테미에서 열렸다. '리빙 넥스트 도어 메타-아티스트'라는 전시 타이틀은 현지정 작가의 '옆집 아저씨'였던 홍동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과 일탈의 묘미를 추구하는 집단을 말하는 '넥스트-도어 엘리스'에서 온 것이기도 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홍동문의 설치작업 '땅바닥 굴곡 측정기'(2023)가 전면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해당 작품은 197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홍동문의 시



리즈 '수평에의 의지' 중 하나이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44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초대받으며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8년 대전 문화원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슈테델릭스볼레시립미술관(네덜란드), 선재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외에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청주시립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전환기의 현대미술'(출판사, 1991) 등이 있다.

The Glory of God 변영혜(7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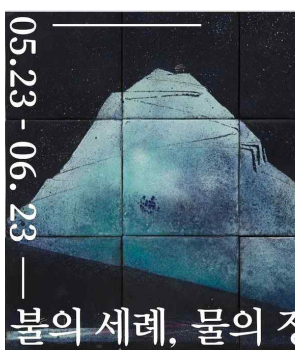
변영혜 동문의 개인전 'The Glory of God'가 지난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이문동 동안교회 로댐갤러리에서 열려 1000호, 500호의 초대형 벽화가 포함된 벽화와 회화 작품들이 전시됐다. 변동문은 회벽 위에 금박과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페인팅하고, 굵고 파내어 표면에 요철을 만든다. 믿음의 기둥으로 이뤄진 성전 안으로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쉼기나의 빛이 비추는 작품들과 지성소의 언약궤, 성소의 순금 등잔대, 분향단이 있는 작품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표상이다. 한편 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목자의 딸', 한국미술상 수상기념전 등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8회의 부스개인전, 270여 회의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Harvard University(미국), Wesley Chapel(영국)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모교 동양화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광림미술인선교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불의 세레, 물의 정화 박성태(80회화)

박성태 동문의 동유화(銅油畫) 전시 '불의 세레, 물의 정화'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청담동 갤러리오스퀘어에서 열렸다. 동유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칠보기법을 확장시킨 미술 장르다. 동판에 돌가루나 유릿가루 등을 얹은 뒤 유약을 바르고 800°C의 고열로 수차례 구워내면서 밀착시켜서 작업한다. 박동문은 청년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엄혹한 시대를 '정지된 시간-해빙기'라는 주제로 표현했다. 1993년, 1994년 두 차례 개인전에서 이 시기 작업에 드러난 질료 해석과 인체 표현으로 일군 작업세계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몇 년간의 해외 체류와 작품활동을 정리하고 무주에 정착한 작가의 새로운 모색을 보여준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아트게이트 갤러리, 공화랑 등에서 15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4년과 1993년에 MBC미술대전 우수상을 받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점·선·면의 유희 이상길(83조소)

이상길 동문의 개인전 '점·선·면의 유희'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리 그림바위예술발전소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자연 현상이 만들어 낸 부드러운 조약돌에서 인상을 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이동문은 평소 재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한다. 그에게 작업이란 재료 안의 본질적 형상을 찾아 관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 작품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진실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동문은 그동안 대리석, 쇠, 청동,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왔으나, 이번 전시에는 스테인리스 재



질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낸 입방체 위의 곡면에는 세상 만물의 형상이 투영된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돌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넘은 커다란 세계, 그 안에 각기 다른 것들이 숨 쉬고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미국 프리먼재단의 아시아작가상,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그림과 생각들 권기동(83서양)

권기동 동문의 개인전 '그림과 생각들'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 삼청동 베카갤러리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슈퍼모더니티가 작동하는 욕망과 고독의 모습을 포착한다. 관계와 기억은 증발하고 무심한 익명의 시선만이 통과하는 도시 한복판, 상상과 현실이 교차한다. 철저한 익명성과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이 공간은 구매 가능한 쾌락의 환상과 함께 우리를 자기 기만적 만족으로 천천히 마비시킨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조우하게 되는 이 섬뜩한 기시감은 장소의 기억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 권동문은 때로는 탐정처럼 때로는 해독



자로 변신하며 그곳에 드리워진 의미들을 읽어낸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M.F.A 학위를 취득했다. 갤러리 네트워크, 갤러리고도, 통인옥션 갤러리 등에서 22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국내외에서 14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외교통상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말을 부르는 사진 이강우(83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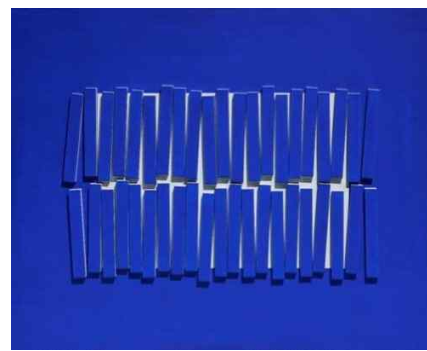


이강우 동문의 사진전 '말을 부르는 사진'이 지난 5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강원지역 탄광촌 태백과 정선 지역의 변화를 19년간 기록한 작품들을 통해 번성했던 탄

광마을이 폐광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동문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두 지역을 방문하며 사진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 기록화 작업, 일명 '사진 도큐멘팅'을 이 기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행한 저서 '석탄진경, 기로에 선 근대-철암과 사북 고한 사이'에 담은 작품들도 함께 전시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토포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사진에 관한 세미나도 열렸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2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예술대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나이면서도 여러 개의 공간 이계원(8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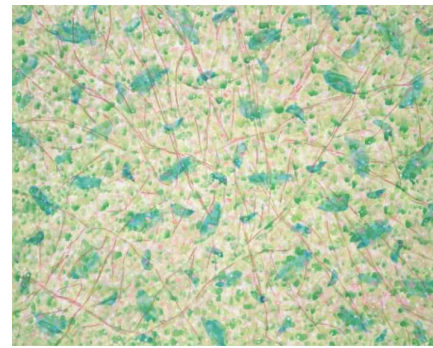
이계원 동문의 개인전 '하나이면서도 여러 개의 공간'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논현동 AD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회화적인 평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하나는 평면 위에 여러 겹의 색 면을 겹쳐 놓아, 평면의 공간을 극대화한다. 다른 하나는 평면을 유지하면서도 입체 구조가 평면에서 이탈하게 하여, 돌출된 공간을 연출한다. 마지막 하나는 화면 평면에 물감이 흐르는 효과를 나타내어, 사람과 물감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그의 공간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평면이면서도 평면이 아닌 공간이다. 작품의 제목 allotropism(동소이



형)도 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인 존재를 가리킨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뉴욕 LIU POST CAMPUS에서 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27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송은미술대상 대상, 창작미술협회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송인옥(82회화)

송인옥 동문의 개인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떼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송동문이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점과 선과 면으로 가득하다. '자연에는 조형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선, 점들이 지천이어서, 내가 아무리 애써본들 무심한 그 한 획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송동문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가 그리는 풍경화는 자연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의식적·무의식적 감정들을 조금씩 남기고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다. 매일 부딪치며 살아가는 삶



의 흔적을 붓 터치와 간결한 선, 무심한 점으로 화면 위에 쌓아 가득 채우고자 한다. 그 안에는 본질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한편 송동문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SNU빌라다르 2023', '분분합합', '한울회전', '앙데빵당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등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을 열었다. 강북 삼성병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예원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후원광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The Visible, The Invisible

송인옥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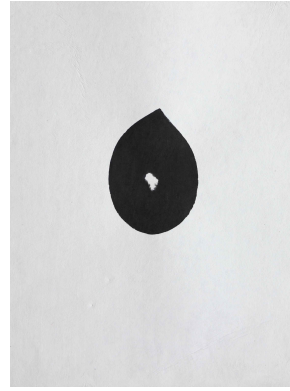
7.21(금)-8.9(수)

관람시간 월~토 11:30-18:00 / 일 13:00-18:00
* 오프닝 7.22(토) 16:00-18:00

전시장소 떼아트갤러리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3155-6호)
문의전화 0507-1357-6227

點 · 心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는가? 지원진(84동양)

지원진 동문의 개인전 '點 · 心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는가?'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촌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동문은 겹겹이 쌓은 한지 위에 붓과 먹으로 목점을 표현한다. 목점은 그가 천착하는 씨앗이나 돌맹이, 물방울과 같은 형상을 담고 있다. 작업에서 목점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관찰의 주체다. '씨앗, 돌맹이, 물방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느끼는 것이 작업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묵전통 속에서 사의적 세계를 중시하며 작업



속에 심의를 담아낸 선조들처럼 지동문은 끊임없이 사유하며 자신의 삶과 내면을 갈무리한다. 그리하여 형형색색으로 눈을 현혹하는 인간세에서 멀어져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 수묵의 정신에 닿고자 한다. 한편 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후 호주 RMIT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화-새로운 형상과 정신전(1990-91 관훈갤러리), 문인화 정신의 표출전(1993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가졌다.

milestone : 시대의 각인 국대호(85서양)

국대호 동문과 김근태, 박종규, 장승택, 천광엽 작가가 참여한 'milestone : 시대의 각인'전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 논현동 갤러리X2에서 열려,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 그 안에서 방향하고 모색하며 성장해 온 예술세계를 선보였다. 국대호는 색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조형요소로 세상을 표현한다. 그에게 색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색에 집중하기 위해 묘사를 절제하는 한편 높은 밀도와 거친 속도감으



로 단단하게 색을 쌓는다. 한편, 국대호는 1992년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1995년 파리 국립미술학교 회화과와 1998년 파리 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갤러리아콘에서 가진 개인전을 시작으로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1997년 살롱 드 비트리 대상을 수상했고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소녀와 레후아 김상경(87서양)

김상경 동문의 개인전 '소녀와 레후아'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레후아는 하와이에 자생하는 상록수 오히아 나무에서 피는 붉은 꽃을 부르는 이름이다. 김동문은 화산재 더미 속에서 싹을 피우는 레후아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는다. 소녀와 레후아는 김동문이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이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서 역설적이게도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는 이들이 난관을 딛고 자라는 레후아의 생명력에서 위로와 희망, 안식처를 찾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에는 레후아뿐만 아니라 제주



거문오름, 하와이 브레드트리, 숲의 수호자 까마귀,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반려견의 모습을 담았다. 그의 작품은 인간사의 근심 걱정과 자연의 무상함 사이에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력을 예찬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예술학교 실기교사로 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전은 판화작업을 선보였고, 이후 2004년에 가족을 그린 인물화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새벽-진부령 송근영(86동양)

송근영 동문이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진부령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 '새벽-진부령'을 갖는다. 송동문은 대나무를 그린 사색의 숲에서 인생과 자연을 논한다. 초기 작품에서부터 전통의 현대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그는 서화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문인의 뜻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Re-new)'하는 것이 한국화가의 과제라고 말한다. '복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사의성(寫意性)'을 동시대(contemporary)의 해석방식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번 전시는 '빛의 드로잉'의 연장선상에서, 역전된 대나무의 여백 위에 먹의 음영이 가미된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다. 문인미학에 신감각을 더한 결과인 셈이다. 모교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송동문은 Shangri-la Project(SADI), 2011 自首의音(서울에서 온 소리/上海 香江畫廊), 留(목인갤러리), 달빛 비친 뜰(금호미술관) 등 개인전을 11회 가졌고 후소회전, 형색인전(가나아트스페이스)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송근영 초대전
8.10(목)-9.17(일)

새벽-진부령

관람시간 화~일 09:00-18:00
(17:30까지 입장)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전시장소 진부령 미술관
(강원 인제군 북면 진부령로 663)

문의전화 033-681-7667

후원광고

14 회원동정-전시

작은 창가에 비치는 밝은 빛 황혜선(88주소)

황혜선 동문의 개인전 '작은 창가에 비치는 밝은 빛'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이태원동 이호갤러리에서 열렸다. 황동문의 작업은 마치 일기처럼 매일 그리는 드로잉에서 시작된다. 책상 위에서 먹을 갈아 가느다란 붓으로 그린 드로잉을 조각으로 변형시켜 공간 안으로 가지고 온다. 황동문은 자신의 작업을 드로잉 조각이라고 부른다. 조각으로 구현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 터치 질감이 담겨있다. 조명이나 자연광이 더해지면 벽에 또 하나의 드로잉이 나타난다. 조각과 드로잉의 경계에서 숨 쉬는 작품은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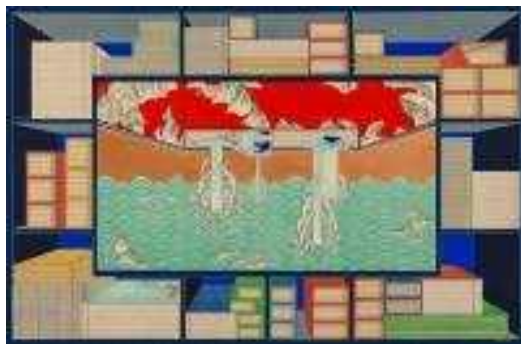


스튜디오 제5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창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처럼, 혹은 은은한 달빛처럼 공간을 채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감상자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호미술관, 포스코미술관, 가나아트보광 등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쳐왔다. 1999년에 제4회 박영덕화랑 신인작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영은미술창작

책, 꽃 그리고 물 안성민(90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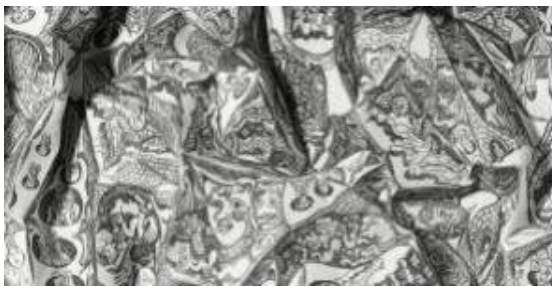
안성민 동문의 전시 '책, 꽃 그리고 물'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 갤러리코어에서 열린다. 한국민화뮤지엄이 기획하고 갤러리코어 주관, 강진군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한국민화뮤지엄 초청 기획전에서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안동문의 삶과 예술, 자연이 조화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 주제인 책가도와 물, 그리고 모란은 작가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소재인 나무에 작업한 현대 민화 신작 5점이 공개될 예정이라 장르



와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조형 언어를 개척하는 안동문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델라웨어 현대미술관, 퀸즈 칼리지 아트센터, 워싱턴 센터, 그리고 스토니브룩 대학교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발사 큐레이터 김은형(96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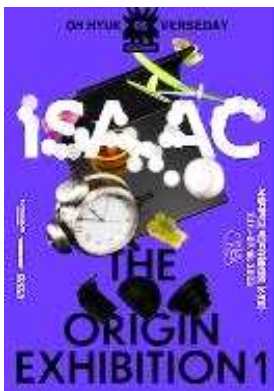
김은형 동문의 전시 '귀인展 김은형 - 이발사 큐레이터'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OCI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발사 큐레이터》는 전시에 등장하는 한 작품의 제목이자 전시 타이틀이다. 전시에서는 큐레이터와 현대미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내용은 대중적인 초현실적인 동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설과 시, 수묵화,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들이 등장한다.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대



학원 석.박사, 시카고예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1년 커플(경성방직/타임스퀘어), 뉴욕(2014), 시카고(2010) 등에서 개인전과 송은미술대상전(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고, 뉴욕 ISCP레지던시(2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15), MMCA 고양레지던시(2017), 2019 OCI미술관 1211레지던시(2019) 등에서 활동하였다.

The Origin : ISAAC 박제성(98디자인)

박제성 동문의 전시 'The Origin : ISSAC'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문화예술원)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중력, 속도, 시간 등의 보편적 과학법칙 속에 내재된 인문철학적 메시지를 예술적 체험을 통해 전달하는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젝트 'There Origin'의 첫 번째 전시이며 미디어 아트 레이블 VERSEDAY와 모교 박제성 교수, 뮤지션 오혁의 협업 전시다. 전시는 찰나성이라는 기억의 속성을 뉴턴 역학법칙으로 표현한다. 전시 공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문을 가졌던 한 아이의 놀이터이다. 높이 8m에



현재 모교 조소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달하는 대형 LED와 거대한 수면에 반사된 영상 속 추억의 물건들은 등가속 운동을 반복하며 그네를 탄 관람객과 미묘한 물리적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작품의 압도적 크기와 몽환적 사운드, 물에 반사된 이미지들이 그네라는 놀이체험과 어우러져 독특한 체험을 제공한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왕립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2회 중앙미술대전 대상과 제1회 VH어워드 그랑프리를 수상했으며

도시차경 이호욱(99동양)

이호욱 동문의 15번째 개인전이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장지를 구기고 물감을 뿌린 뒤 평평하게 펴서 그 위에 먹으로 그림을 그린다. 수학여행 사진 등을 통해 대중이라는 소재를 꾸준히 다뤄왔던 작가는 이제 대중의 이야기를 하되 대중의 이미지, 사람을 그리기보다는 풍경, 건물을 그려 사람들의 흔적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 도시차경(都市借景)에서는 높은 공간, 낮은 공간을 통해 대면 접촉의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작가는 카페에 다양한 의자를 배치해 두면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목적의 의자에 앉는 것을 보며 사람 사는 모양과 닮았다고 여겼다. 이를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개인적 공간을 구현하는 아파트와 다른 형태이자 대면 접촉의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라보았다.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춘천교대 미술교육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 유현경(05서양)

유현경 동문의 개인전 '가난한 사람'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길 이구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명 '가난한 사람'은 시류와 타협 없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이들을 일컫는다. 유동문에게 어떤 대상을 그리거나 인물을 그리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는 대상이나 인물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그 삶 속에 진솔하게 들어가 더 내밀한 부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감각들을 한순간 빠르게 포착하고 붓질로서 기록하여 직감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



2022년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 리더 20인에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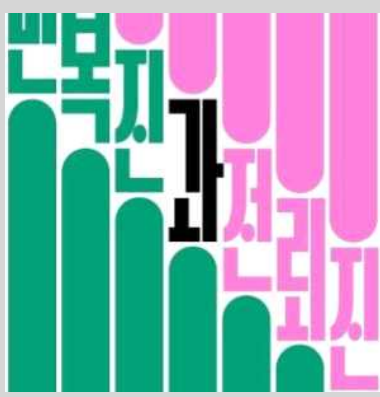
존의 작품들보다 더욱 솔직하고 거침없으며 유동문 특유의 조형 언어로 빚어진 신작 총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독일 솔로스 플뤼쇼브(2011), 스위스 취리히 로테 파브릭(2014), 뉴욕 두산 레지던시(2016) 등 해외 레지던시에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2019년 제8회 종근당 예술지상 수상,

8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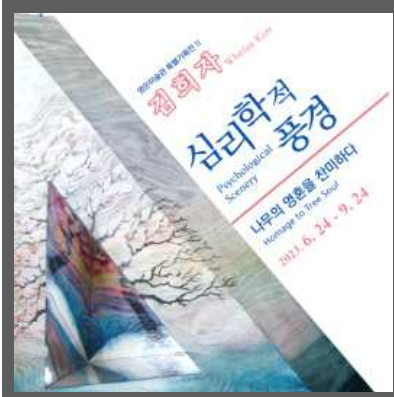
책, 꽃 그리고 물

안성민(90동양)
6.1-8.30
갤러리코어



민복진과 전뢰진

전뢰진(49응미) 외 1인
6.20-2024.1.21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심리학적 풍경

김희자(66회화)
6.24-9.24
영은미술관



예해무변전

김소선(63조소)
7.1-8.31
갤러리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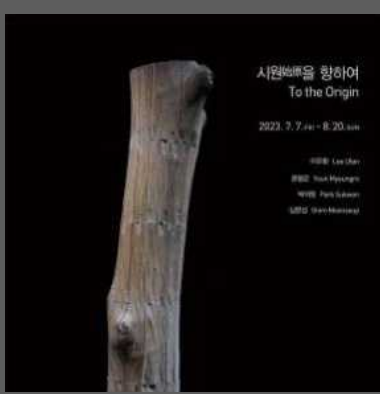
Half Sticky

오가영(10조소)
7.5-8.10
BK기업은행 본점 로비



너와 함께

채혜선(82응미) 외 1인
7.5-8.26
메타갤러리 라루나



시원(始原)을 향하여

윤명로(56회화) 심문섭(61조소)
7.7-8.20
가나아트센터



빛의 바다

김인중(59회화)
7.7-8.31
제주항공우주박물관



Working and Living

정직성(정혜정/95서양)
7.11-9.2
갤러리이배



My Garden

최명애(70회화)
7.13-8.5
조은갤러리



Flash

신건우(97조소)
7.14-8.25
필립스 옥션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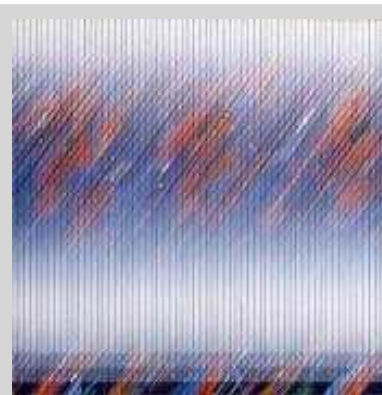
내 이름은 빨강

서용선(75회화)
7.15-10.22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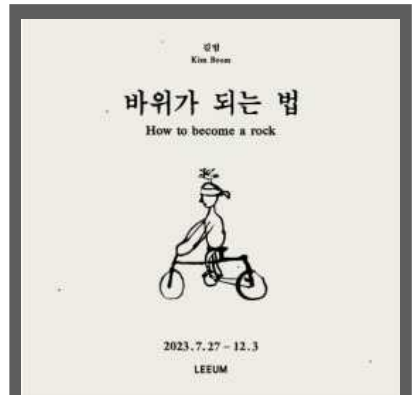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송인옥(82회화)
7.21-8.9
떼아트갤러리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

하동철(61회화) 외 1인
7.21-9.10
양평군립미술관



바위가 되는 법

김범(82회화)
7.27-12.3
리움미술관



Birth; Reverse

강민수(14조소) 박상민(15조소)
박수연(석사18조소)
7.28-8.14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창조적 일상

권민경(01서양)
8.1-8.13
갤러리제이와이



86-23

서양화과 86 동문전 22인
8.1-8.27
갤러리더플렉스



불량한 썬

황시연(17서양)
8.9-8.15
지아트갤러리



새벽-진부령

송근영(86동양)
8.10-9.17
진부령미술관